마틴 로이드 존스 『산상설교』 상 (문창수·안광현 옮김, 베드로서원)

2장 개관 및 분석

『산상설교』 상권 제2장, 인쇄 23~35쪽 · 설교 본문 마태복음 5:1~2 (산상설교 5~7장 전체 개관)

> ❓ **산상설교의 한 구절을 붙잡기 전에, 이 설교 전체를 어떤 눈으로 읽어야 할까?**

🧭 흐름 한눈에

로이드 존스는 먼저 학자들의 기술적 논쟁이 성경의 메시지를 가리지 않도록 경고한다. 이어서 산상설교의 어느 부분도 전체에 비추어 보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팔복이 맨 앞에 온다는 순서를 강조하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나 국가에 특정 명령을 떼어 적용하는 것을 비판한다. 그다음 설교 전체를 일반 부분(5:3~16)과 특수 부분(5:17~7장)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이 분석에서 그리스도인의 세 원칙을 끌어낸다. 하나님의 법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살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산상설교는 규칙집이 아니라 성격의 서술이라는 해석 원칙을 세운다. 그리고 해석이 명령을 우스꽝스럽거나 불가능하게 만들면 해석이 틀린 것이라는 시금석을 준다.

📜 절별 정리

📜 1. 기술적 논쟁보다 메시지를 마주하라

로이드 존스는 학자들이 좋아하는 토론부터 꺼낸다. 마태복음 5~7장의 설교와 누가복음 6장의 설교가 같은 설교인지, 복이 일곱인지 여덟인지 아홉인지 하는 문제다. 그는 이런 연구의 가치를 깎아내리지는 않는다. 다만 기술적 문제에 빠져

위대한 성경학자라는 인상을 주었지만, 생활은 신약의 가르침과 너무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다. 로이드 존스는 셰익스피어를 분석하듯 성경을 분석할 수는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무릎 꿇지 않고 성경을 읽지 말라”던 신앙 선배들의 말을 점점 이해하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1. 복의 개수보다 복과 마주하는 것이 중요하다
2. 기술적 연구 자체를 비난하지는 않는다
3. 박식하지만 삶이 다른 '성경학자'를 경계한다
4. 성경은 다른 책처럼 다룰 책이 아니다
5. 무릎 꿇는 자세로 읽어야 한다

> **마태복음 5:1~2**
> 이 장이 다루는 설교의 출발점이다
>
> [1]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2]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 **누가복음 6:20~49**
> 학자들이 동일 설교 여부를 따지는 평행 본문으로 언급된다
>
> [20]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21] 지금 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22]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23]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24]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25]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

2. 숨을 멈춰 보라 — 팔복이 맨 앞에 오는 이유

로이드 존스가 전체를 먼저 보려는 이유는 '나무만 보다 숲을 못 보는' 위험 때문이다. 그는 산상설교를 교향곡에 비유한다. 전체는 부분을 단순히 모아 놓은 것보다 크다. 그래서 전체를 파악하지 못하면 개별 명령 하나도 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 이 원칙으로 '산상설교의 사회적 적용'을 비판한다. “다른 편 뺨을 돌려 대라”는 말씀만 떼어 내어 모든 전쟁은 비기독교적이라고 주장하는 방식이다. 그는 평화론 자체를 논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밝힌다. 요점은 따로 있다. 개인이든 국가든 세계든 팔복대로 살지 않는 한, 특정 명령 하나를 떼어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모든 명령은 서두의 팔복 위에 서 있다. 그래서 그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산상설교대로 살라고 요구하는 것을 이단이라고까지 부른다. 신약 서신서도 같은 구조다. 먼저 교리가 나오고, 그다음 “그러므로” 하며 신자에게 권면이 이어진다.

1. 산상설교는 교향곡처럼 전체가 부분보다 크다
2. 모든 명령은 서두의 팔복 위에 서 있다
3. 한 구절을 떼어 국가에 적용하면 허위가 된다
4. 거듭나지 않은 이에게 기대할 행위가 아니다
5. 서신서도 교리 다음에 '그러므로' 권면이 온다

> **마태복음 5:3~10**
> 맨 앞에 놓인 팔복이 모든 명령의 기초임을 보여 준다
>
> 3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4 애통하는 자는
>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5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6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 배부를 것임이요 7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 것임이요 8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

> **마태복음 5:39**
> 떼어 내어 전쟁 반대 근거로 쓰이는 대표 사례다
>
>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서 기독교인의 행위를 기대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 3. 산상설교의 설계도 — 일반 부분과 특수 부분

로이드 존스는 여러 분류법 가운데 일반과 특수로 나누는 방식이 가장 좋다고 본다. 일반 부분인 5:3~16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큰 그림이다. 5:3~10은 그리스도인의 본질적 성격을 그린다. 5:11~12는 세상이 그를 욕하고 박해하는 반응을 통해 그 성격을 증명한다. 앞이 성격의 긍정적 면이라면, 여기는 부정적 면에서 본 서술이다. 5:13~16은 사회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하는 기능을 말한다. 나머지는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지 보여 주는 구체적 예다. 5:17~48은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선 그리스도인이다.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보복, 이웃을 다루며, 원칙은 율법의 조문보다 영을 더 중시한다는 것이다. 율법의 조문은 글자로 적힌 규정을, 영은 그 규정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말한다. 6장은 아버지 앞에서 순종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기도와 구제, 먹고 입는 문제까지 모두 아버지와의 관계에 비추어 본다. 7장은 하나님의 판단을 의식하며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이다. 비판, 좁은 문, 거짓 선지자, “주여 주여”, 시험받을 집 짓기가 여기 나온다.

1. 5:3~16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일반 서술이다
2. 성격(3~10), 세상의 반응(11~12), 기능(13~16)
3. 5:17~48: 조문보다 영을 중시하는 율법관
4. 6장: 사람의 인상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
5. 7장: 하나님의 판단 아래 사는 삶

> **마태복음 5:11~12**
> 세상의 박해가 그리스도인의 성격을 증명한다

[11]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16

일반 부분의 결론으로, 세상 속 기능을 요약한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6:1

6장 전체가 '아버지 앞'의 삶임을 여는 구절이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31~33

6장 끝에서도 같은 원리로 의식주 염려를 다룬다

[31]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7:21

활동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함을 요구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24~27

그리스도인은 시험받을 집을 짓는 사람이다

[24]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26]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27]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 4. 그리스도인의 세 원칙

설계도에서 로이드 존스는 그리스도인 특유의 세 원칙을 끌어낸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법과 관계된 사람이다. 그는 1장에서 경고한 대로 율법과 은혜를 정반대로 보는 경향이 위험하다고 다시 말한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을 지키도록 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 율법의 요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그리스도인은 늘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의식한다. 그는 마음대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음식, 주택, 옷 같은 문제를 다르게 본다. 이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다. 주된 관심사가 아니고, 이것을 위해 살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은 답이 아니다. 로이드 존스는 이것을 로마 가톨릭 수도원 제도의 과오로 지적한다. 셋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산다. 이 두려움은 비겁한 두려움이 아니다. 심판이 오고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판단하시기 때문에 생기는 경외다. 그는 현대 그리스도인을 고발할 최후의 죄가 '얄팍함과 입담'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늘 자기를 부인하며 사는 것, 이것이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다.

1.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2. 늘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의식하며 산다
3. 의식주는 중요하지만 삶의 목적이 아니다
4. 세상 밖으로 나가는 수도원은 답이 아니다
5. 비겁함이 아닌 경외로 심판을 기억한다

> **로마서 6:14**
> 그리스도인이 '율법 아래' 있지 않음을 말한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로마서 8:3~4

그리스도의 목적은 율법의 요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3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 4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일서 4:18

그리스도인의 두려움이 비겁한 공포가 아님을 보인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2:28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평생을 사는 모습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고린도후서 5:10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4:17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마태복음 7:13~14

자기 부인의 삶이 생명으로 가는 좁은 길이다

13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 5. 해석 원칙 — 규칙집이 아니라 성격의 서술

로이드 존스는 산상설교 해석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을 제시한다. 산상설교는 윤리 규범이나 새 십계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린 '성격의 서술'이라는 것이다. 주님은 “너희가 이런 사람이니 율법을 이렇게 대하고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 그래서 명령을 기계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적용하면 우스꽝스러워진다. 예로 마태복음 5:40을 든다. 문자 그대로 하면 옷장이 금방 빌 것이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요점은 다르다. 하나님의 뜻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속옷을 내주고 십 리를 더 갈 마음 상태가 되어 있으라는 것이다. “나와 나의 모든 소유는 주의 것”이라는 자세다. 일반 원리와 구체 명령의 관계를 보여 주려고 그는 음악가를 예로 든다.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를 실수 없이 악보대로 쳐도, 정신과 해석이 빠지면 그 소나타를 연주했다고 할 수 없다. 위대한 예술가를 만드는 것은 표현과 영과 생명이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이 문자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문자를 영에서 떼어 내지 않을 뿐이다.

1. 산상설교는 새 십계명이 아니다
2.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는 서술이다
3. 명령을 하나씩 떼어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4. 요구되는 것은 언제든 내어줄 마음 상태다
5. 악보만 치면 월광 소나타가 아니다

마태복음 5:40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우스꽝스러워지는 예로 쓰인다

마태복음 5:41

십 리를 더 가는 것도 규칙이 아니라 자세임을 보인다

>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 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 리를 동행하고

마태복음 5:20

문자만 붙든 서기관·바리새인의 의를 넘어서는 의를 요구한다

>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산상설교는 어떤 윤리나 도덕적 규범이 아니라, 어떤 성격의 서술"

📜 6. 세 가지 시금석, 그리고 부흥에 대한 소망

끝으로 로이드 존스는 해석을 점검할 시금석을 준다. 첫째, 세부 내용에서 걸리는 데가 있으면 내 심령이 잘못되었거나 내 해석이 잘못된 것이다. 내 심령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내가 팔복대로 살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니 말씀과 다투지 말고 야고보서대로 듣기는 빨리,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 해야 한다. 둘째, 해석 때문에 어떤 명령이 우스꽝스러워 보이면 해석이 틀린 것이다. 주님의 교훈은 우스꽝스러울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어떤 명령이 불가능해 보여도 해석이 틀린 것이다. 주님은 지상명령에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다. 주님 자신과 제자들이 이 설교대로 살았다. 여러 세기의 성도들도 이 설교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고, 허드슨 테일러의 전기가 그 예다.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 부르던 시대가 있었다. 그러나 오늘의 그리스도인은 감동적인 간증은 하면서도 요란함과 안이한 확신으로 세속인의 인상을 준다. 로이드 존스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산상설교대로 산다면 부흥이 이미 시작되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설교를 비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심판 아래 서게 해 달라는 기도로 마친다.

3. 불가능해 보이는 해석도 틀린 해석이다
4. 주님과 제자들, 허드슨 테일러가 그대로 살았다
5. 설교를 비판하지 말고 그 판단 아래 서라

야고보서 1:19

말씀과 다투지 말고 먼저 들으라는 태도를 준다

>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 하라

마태복음 28:19~20

주님은 이 교훈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실 작정이셨다

>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7:24~27

우리가 짓는 집이 마지막 시험을 견뎌야 함을 기억하게 한다

> 24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5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26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27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주님의 교훈은 아무것도 우스꽝스러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 **오해와 반론**

📖 용어

산상설교
예수님이 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가르침으로, 마태복음 5~7장에 기록되어 있다.

팔복
산상설교 첫머리(마태복음 5:3~10)의 “~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이어지는 여덟 가지 복으로, 그리스도인의 성격을 그린다.

중생(거듭남)
성령으로 새 생명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새사람이 되는 일이다.

율법의 조문과 영
조문은 글자로 적힌 규정이고, 영은 그 규정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정신이다.

율법 아래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어야 하는 처지를 말한다. 그리스도인은 이 처지에서 벗어났지만 율법을 버린 것은 아니다.

수도원주의
거룩하게 살기 위해 세상을 떠나 따로 공동체를 이루는 방식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함
벌이 무서워 떠는 공포가 아니라, 심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삼가며 사는 경외다.

부흥
하나님이 교회를 새롭게 하셔서 신자들이 살아나고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일이다.

• 점검 질문

✅ 이 장의 결론

- 산상설교는 전체를 먼저 보아야 하며, 모든 명령은 맨 앞의 팔복 위에 서 있다.
- 이 설교는 거듭난 사람에게 주신 것이다. 비신자나 국가에 떼어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다.
-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법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 산상설교는 규칙집이 아니라 성격의 서술이다. 우스꽝스럽거나 불가능한 해석은 틀린 해석이다.
- 우리는 이 설교를 비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판단 아래 서야 한다. 그렇게 살 때 부흥이 온다.

빛다방 학습 노트 · 마틴 로이드 존스 『산상설교』(베드로서원, 문창수·안광현 옮김)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입니다.